

울릉도의 메뚜기

2008. 7. 15. ? 18.

	
<p>한반도 동쪽 바다에 자리잡은 신비의 섬 울릉도, 마침내 메뚜기를 보러 가게 되었다.</p>	<p>도동항과 씨플라워호</p>
	
<p>검은다리실베짖이 유충 어디에나 흔하게 많았다.</p>	<p>꼬마모메뚜기 울릉도산은 처음 확인하였다.</p>
	
<p>민어리썩새기, 육지에는 드물지만, 울릉도 숲에서는 흔히 발견되었다.</p>	<p>나리분지와 전통가옥 우데기 (귀틀집)</p>



팔중이 유충
육지에 매우 흔한 이 녀석이 참 드물었다.



애여치
나리분지 풀밭에서 한참 울고 있는 중



통구미 바닷가에서 발견한 흰배긴꼬리,
벌써 울기 시작한다.



바다방울벌레
통구미 방파제를 기어 다녔다.



극동귀뚜라미 유충
태하령 빈터 돌밑에서 발견



등검은메뚜기 유충
태하령 빈터에서 발견



왕귀뚜라미 유충	산바퀴, 대부분 알을 배에 매달고 있었다.
	
남양해변에서 발견한 베짚이 유충	섬서구메뚜기 유충
	
애매부리 유충 성숙한 암컷도 있었다.	바닷가 풀밭에서 울고 있던 싹새기
	
두꺼비메뚜기 유충	내수전 전망대에서 바라본 저동항

Produced by pulmuchi@yahoo.com